

사랑을 배워가는 풋풋한 청춘 이야기

“좋아한다는 게 뭐죠?”, “나도 몰라” 영화 ‘마치다군의 세계’는 고등학생들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종의 성장기다. 그래서 더 풋풋하고 순수하게 다가온다.

사람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마치다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가 넘친다. 반면 사람이 싫다며 학급 친구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이노하라는 마치다가 답답하면 서로 그의 행동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영화는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다. ‘모두를 좋아하는 소년이 모두를 싫어하는 소녀를 만나 새로운 감정을 깨닫게 된다’는 다소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는 그대로 재현한다. 만화를 실사화하며 현실감각을 깨우기보다는 만화의 순수함을 유지한다.

이노하라를 좋아하는 마음이 뭘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마치다를 답답해하다가 어느새 응원하게 되는 것도 이런 때 못지 않은 순수함 때문이다. 영화의 후반부 “그때부터 좋아했던 거야. 그때도. 그때도”라며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마치다를 보면서 관객 역시 첫사랑 때 느꼈던 경이로움을 회상하게 된다.

영화에 이런 감수성이 물씬 묻어나는 데는 1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신인 배우들의 활약도 한몫한다. 마치다 역은 호소다 가나타, 이노하라 역은 세키미즈 나기사가 맡았다. 아직 아무런 색을 갖지 않은 신인 배우만의 매력이 잘 어우러진다.



영화 ‘마치다군의 세계’ 스틸컷.

동명 만화 원작 영화 ‘마치다군의 세계’

이시이 유야 감독 특유 서정적 감성 특징

여기에 인지도 높은 배우진이 조연으로 대거 출연해 빈틈을 메운다. 일본 아이돌 AKB48의 멤버로 팬덤을 보유한 마에다 아스코가 마치다의 조력자 사카에 역을 맡았다. 드라마 ‘과보호의 카호코’ 등에서 주연을 맡아 한국 관객에게도 익숙한 다카하타 미스키가 사쿠라 역을 연기한다. 이 밖에 연기파 배우 이케마쓰 소스

케, 토다 에리카 등이 출연한다.

이시이 유야 감독의 특유의 잔잔하고 서정적인 감성도 엿보인다. 이시이 감독은 ‘행복한 사전’, ‘이별까지 7일’,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등의 작품으로 차분하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앞선 작품과 ‘마치다군의 세계’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원물 특유의

명량함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만큼 영화 곳곳에서 오글거리는 대사나 과장된 행동들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젊은 관객 층에는 친근하게 다가갈 것지만, 연령대가 높은 관객으로서 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야기도 마치다의 시각에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착한 마음’으로 다가가다 보니 큰 갈등이 없다. 이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져 120분의 러닝타임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

오는 12일 개봉. /연합뉴스

광주 MBC ‘정율성동요경연대회’ 개최

11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

13억 중국인의 추앙을 받으며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2020 광주 MBC 정율성동요경연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열린다.

이번 동요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광주MBC(사장 송일준)가 주최하고 광주시·남구·화순군·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살레시오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를 비롯해 화순 능주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장성 진원초등학교, 경기남양주 백봉초등학교, 대구 황금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8개

중창단이 경연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 팀은 자유곡 1곡과 정율성 동요 1곡을 부르게 된다. ‘정율성상’ (광주시장상)에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광주문화방송사장상)에는 상금 150만 원 등 총 상금 750만 원과 상패를 시상한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광주 출신 정율성의 음악적 성과를 기리고 어린이 문화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MBC 이승철 광고사업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를 축소해 아쉽지만,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통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화합의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지난해 ‘정율성상’ 수상팀인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합창단.

/광주MBC 제공

이승철, 35주년 스페셜 싱글 발매

신곡 ‘마이 러브’ 태연과 듀엣 28일부터 전국 5개 도시 콘서트

가수 이승철이 데뷔 35주년을 맞아 발표하는 스페셜 싱글에서 태연과 호흡을 맞춘다.

소속사 플렉스엔터테인먼트는 4일 이승철과 태연이 함께 부른 ‘마이 러브’가 발매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곡은 2013년 이승철의 11집 타이틀곡인 ‘마이 러브’를 듀엣곡으로 편곡한 버전이다.

태연이 소속된 소녀시대가 1집에서 이승철의 히트곡 ‘소녀시대’를 리메이크한 것을 계기로 협업이 성사됐다.



가수 태연(좌)과 이승철.

/플렉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속사는 이승철이 내년 상반기 세 앨범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또 다른 역대급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5개 도시를 돌며 콘서트 ‘우리, 이제 만나요’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25주년 뮤지컬 ‘명성황후’ 내년 1월 개막

뮤지컬 ‘명성황후’가 내년 공연을 앞두고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제작사 에이콤은 내년 1월 개막하는 ‘명성황후’ 25주년 기념공연의 명성황후 역은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신영숙이 맡는다고 최근 밝혔다.

조선의 26대 왕 고종 역은 강필석과 손준호가, 명성황후를 연모하는 호위무사 홍계훈 역은 박민성과 윤형렬, 보이그룹 비투비의 이장섭이 연기한다.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역에는 이정열과

서범석,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일본공사 미우라 역에는 김도형과 최민철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명성황후’는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삶 뿐만 아니라 격변의 시대에 주변 열강들에 맞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여성 정치가로서의 고뇌를 다룬 작품이다. 창작 뮤지컬로 1995년 12월 초연을 올렸다.

25주년 기념공연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긍정 에너지 모두 나눠주고 떠난 박지선

사흘째 추모 물결...방송관계자·팬들 발길 생전 진솔한 어록·감춰진 선행도 재조명

“본인이 아프면서도 남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의 죽음에 더 슬픈 것 같습니다.”

KBS 2TV ‘개그콘서트’ 시절부터 개그맨 박지선을 오래 봐온 한 방송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 박지선이 갑자기 세상을 등졌을 때 개그계는 물론 고인과 한 번이라도 인연이 닿았던 연예계 관계자들이 큰 충격에 빠져 빈소로 달려온 것도 이와 비슷한 생각에서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선은 생전 ‘무해한 웃음’을 추구했고 실제로 무대에서 남을 비하하거나 하는 일 한번 없었다. 주변을 깎아내리지 않고 웃기는 것은 개그맨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박지선은 13년의 개그맨 생활 동안 이 원칙을 고수했다.

또 박지선의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묻어났듯이 가족과의 일상부터 자신이 진행을 맡은 행사 등 일터에서까지 그

의 삶은 유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선 트위터 ‘맛쟁이 희극인’에는 이번에 함께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재밌고도 알콩달콩했던 일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고인이 남긴 진솔한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도 ‘어록’으로 재조명받는다.

그는 2015년 청춘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임용고사 학원에서 수업을 들던 중 함박눈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더니 교실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웃었을 때가 생각나 그 길로 학원 문을 박차고 나와 KBS 개그맨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피부 질환으로 개그맨이면 누구나 시도하는 분장 개조조차 할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조명이 내리쬐는 행사장에서 는 것조차 어려웠던 박지선이지만 그는 “나는 내 얼굴을 사랑한다.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주겠느냐”고 해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개그우먼 고 박지선.

군더더기 없이 ‘착한 공감’을 끌어냈던 박지선은 방송가는 물론 다양한 강연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고인은 남몰래 선행도 해왔다. 한 대학 학생은 전날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학창 시절 자신의 국어 선생님 친구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자신에게 급식비와 문제집 사는 비용 등을 지원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선생님고 고래대 동기가자 절친한 사이였던 박지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은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듯 박지선은 생전 주변에 순도 100%의 희망과 긍정 에너지를 선물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개그맨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인연을 맺은 배우들이나 아이돌 스타들도 조문을 오는 것을 보고, 고인은 한 번 만나도 잊기 어려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비탄해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1월 5일 (음력 9월 20일)

48년생 사소한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하라. 60년생 오해는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만 풀린다. 72년생 팔은 안으로 굽는다. 84년생 행운이 발동하는 날이다.

49년생 몸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61년생 술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73년생 만인의 사랑을 받는다. 85년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50년생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62년생 무조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독이 된다. 74년생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86년생 건강을 과신하지 말라.

51년생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63년생 고집을 부리면 외톨이가 된다. 75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87년생 짚신도 짚이 있다.

52년생 세상에 믿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64년생 뿌린 만큼 거둔다. 76년생 몸을 낮추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라. 88년생 님도 보고 뽕도 탄다.

41년생 모처럼 일신이 편안하다. 53년생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65년생 사기꾼을 조심하라. 77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42년생 예상보다 결과가 더 좋다. 54년생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66년생 무리한 투자는 삼가고 지켜보라. 78년생 쥐구멍에도 벌 뜰 날 있다.

43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라. 55년생 마만 바쁘고 되는 일이 없다. 6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79년생 신운을 얻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44년생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5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68년생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80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45년생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57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9년생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한다. 81년생 명성을 천하에 크게 떨친다.

4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8년생 바다는 잠잠하고 천하는 태평하다. 70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82년생 대결이 아닌 타협을 선택하라.

47년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59년생 몸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71년생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 83년생 하면 된다.